

시위 참가시 꿀팁

degoogle

<https://ssd.eff.org/en/module/attending-protest>

삼성 마냥 또하나의 가족이 된 검열에 맞서,

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, 보다 안전하게 거리에서 외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.

아래 내용은 링크된 전자 프런티어 재단(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, EFF)의 포스팅을 요약한 것이니,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

1. 폰 비밀번호 설정하기

- 최소 8자 이상.
- 지문인식, 안면인식 등 물리적 강제로 해제될 위험이 있는 방식은 비활성화

2. 안전한 메신저로 소통하기

- 종단간 암호화를 지원하는 signal, session, briar 등의 메신저로 시위정보 공유

3. 데이터 관리

- 휴대폰 압수에 대비해 데이터를 미리 백업해놓기 (sd카드에 넣고 집에 두고오기, nextcloud등의 상대적으로 안전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)
- 절대로 탈취되서는 안되는 정보가 휴대폰에 있다면 안전한 곳에 두고 대신 선불폰을 가져가자.
- 당신의 위치는 기지국에 의해 특정 가능하므로, 선불폰을 사용할 정도의 위협 모델이라면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전거도 고려해야한다.

4. 시위 도중

- 화면 잠금 상태에서 촬영이 가능하다면 이 기능을 활용하자. (구글 픽셀, 아이폰 등)
- 비행기모드를 적절히 이용하면 추적을 피할 수 있다
- 시위장소에서 해산될 경우의 집선 장소를 미리 정해놓도록 하자

5. 경찰이 휴대폰 제출 요구시

- 영장이 없다면 휴대폰 제출 및 화면 잠금 해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
- 강제로 뺏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음이 명확하면 증거 입수 과정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될 수도 있음
- 체포가 된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변호사가 올 때 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, 변호사 없이 진술하게 될 경우 거짓 진술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진실을 말해야 함